



서울특별시 감염병 소식지 제4호

발행: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화: 02-740-8891~3 | 홈페이지: <http://scdc.or.kr/>

손 씻기와 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 예방하기!

감염경로와 증상 알아보기



감염경로

-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분변-경구) 감염
-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 A형 간염 환자와 성접촉을 통한 감염



증상

- ▶ 초기 전신 증상(발열, 두통, 권태감, 피로 등) 발현 후 암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 발현
- ▶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복부 불쾌감, 설사 등 증상을 동반

* 6세 미만 소아에서 대부분 무증상(70%)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70%이상 황달이 동반되며 증상 심함

예방법과 환자 발생 시 대처



예방법

- ▶ 올바른 손 씻기 실천과 안전한 음식 섭취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 ▶ 예방접종 : 12~23개월의 모든 소아(국가필수예방접종)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소아청소년과 성인(주 대상은 20~30대 연령)



환자 발생 시 대처

- ▶ 환자 : 증상 발생(황달 발생, 간수치 상승) 후 1주일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 격리는 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
- ▶ 접촉자 : 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50일까지 발병 여부를 관찰하고 A형 간염 백신접종 시행
- ▶ 환자 발생 시 환경관리 : 환자와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



전문가 칼럼 | A형간염 치료와 예방



이동현(소화기내과 전문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해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감염된 환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된다. 개인 위생 관리가 좋지 못한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20~30대에서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A형 간염의 잠복기는 보통 14-28일로 이후 피로감, 구역감, 구토, 식욕부진, 발열, 복부 불편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그 후 일주일 이내에 짙은 색의 소변 및 황달이 나타나게 된다. 소아에서는 대개 무증상이며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전신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황달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통해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항A형 간염 바이러스 면역글로불린 M 항체 (anti-HAV IgM Ab) 검사 양성 소견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이며 고단백 식이와 휴식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 A형 간염은 대개 3개월 이내에 회복되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달리 만성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이거나 만성 간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A형 간염은 경구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손 씻기가 중요하다. 최근 A형 간염 예방 백신이 상용화 되었으며 이를 접종하는 것은 A형 간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